

보도설명자료 (17. 11. 1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환경오염 불러”

- 정부 보조금까지 받는 목재펠릿.. 초미세먼지 연탄의 20배 유발(17. 11. 14, 조선일보)

1. 기사내용

- 환경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(RPS)가 오히려 목재펠릿의 이용량을 높여 환경오염을 불러온다는 지적
 -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, 목재펠릿은 연탄보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계수가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인용된 보고서는 가정 및 난방 부분의 비관리형 소규모 연소시설에서 연료 연소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을 조사한 연구이며,
 - 연소제어가 용이하여 완전 연소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발전 부분으로 연구 결과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곤란함
- 한편,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따르면, 목재펠릿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유연탄의 5% 수준이며,
 - 특히 먼지와 황산화물의 경우 2% 이내로 유연탄에 비해 환경유해성이 매우 낮으며, 질소산화물도 유연탄의 32% 수준에 불과



(단위 : kg/ton)

구분	먼지	황산화물	질소산화물	합계
목재펠릿*(A)	0.93	0	2.42	3.35
유연탄**(B)	50	9.5	7.5	67
비중(A/B)	1.9%	0%	32.3%	5.0%

*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(국립환경과학원) 별표3

**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(환경부) 별표10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전병근 과 장 (044-203-5160)
이기현 사무관 (044-203-5166)